

민주 혁신계 “이재명, 가장 큰 문제” 한목소리

“이재명 민주당서 ‘국민 민주당’ 으로”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국민과 함께 토크쇼’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비명계)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민주당내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라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 대표 밑에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는 수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심소통 4: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열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했던 말은 무엇인가’는 참가자의 질문에 “뭘가 문제냐고 물으니깐 막 막해가지고 뭘라고 얘길 못하겠다고 했다”며 “뭘가 문제냐”고 객석을 향해 되물었다. 객석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너’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사법리스크) 사안을 다 알 수 없다.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우리당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여기 방어에 주력해야 되느냐. 그것도 원칙과 상식이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윤리 이원욱 의원은 “당에서 당직을 주고 공천을 보장해준다면 지금처럼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다.

이어 “아까 참가자 분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너다’라고 하셨다”며 “저는 너(이 대표) 밑에선 아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윤영찬·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4. ‘국민과 함께 토크쇼’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 체제선 아무것도 말을 생각 없어**
사법리스크 방어에 왜 당이 힘쓰나
연말까지 쇄신 위해 노력해보겠다

것도 할 생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과정

이 없어 의아했다며 “오늘 민주당의 아픔을 만들어낸 일이 아닌가 싶다. 적극 문제제기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김종민 의원은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며 “민주당이 바뀌어야 제일 좋은 것이다. 이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께 같이 한 번 또 상의를 드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감사 인사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 더 특별하고 새롭게”

도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방시대 독자적인 분권 모델 되도록 의정 역량 집중”

전북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출했다.

전북도의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권을 갖추면서 더 특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당초 법안 조문 수가 28개에서 131개로 확대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비롯한 더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을 갖추는 특례들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전북도민과

총향인 등 500만 전북인의 응집된 힘의 값진 성과물”이라며 “지역 발전을 향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전북특별법의 특례들을 지역에 오픈이 넘어 지역 시대의 독자적인 분권 모델이 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거듭 환영했다.
/김재훈 기자

문 전 대통령 “합의 파기·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

“이념적 결정으로 상황 악화”... 현 정부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리하게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을 비롯한 실제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라며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

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여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여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리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빠아왔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함께 비핵화의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매우 귀한 책이어서,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뉴시스

“민주주의·법치주의 위해 다시 시작해야”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의 난’ 출판기념회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진행·좌절 등 기록 담다



지난 9일 전북대학교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가운데, 황 전 행정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병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청와대 근무 시절 검찰개혁 과정을 기록한 책 ‘검찰의 난-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황현선의 기록’ 출판기념식을 지난 9일 가졌다.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원택·김승원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민들이 찾았다.

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의 정부 검찰개혁 과정을 기록한 책 ‘검찰의 난-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황현선의 기록’ 출판기념식을 지난 9일 가졌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을 그린 이 책과, 영화 ‘서울의 봄’ 등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분노는 다르지 않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책”이라며 “저의 동지 황현선의 용기있는 결단이 자 길 없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격려했다.
주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관영 전북

도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성호 의원, 고민정 의원, 진성준 의원, 황희 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 최강욱 전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황 전 행정관을 기리며 “정당, 청와대, 국회에서 개혁에 앞장서 온 동지”라며 “전라기획에는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축전을 통해 “이 책은 검찰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준엄하게 고발하는 ‘현대판 징비록’”이라고 축하했으며,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 등도 축전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황현선 전 행정관이 직접 나서 책에 대한 출간 배경을 관객들에게 설명하고, 이어 방송인 가운데, 황 전 행정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을 그린 이 책과, 영화 ‘서울의 봄’ 등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분노는 다르지 않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책”이라며 “저의 동지 황현선의 용기있는 결단이 자 길 없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격려했다.
주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관영 전북

“신당 실무 준비 단계 결단 늦지 않게 할 것”

이낙연 전 총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사람이라면 뜻 모을 필요 있어” 밝혀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연대를 위한 회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낙연 전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총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금방 만나겠다는가 그런 뜻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뜻을 모으고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이 본격화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실무적인 일이 굉장히 많은 만큼 누군가는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며 “결단은 늦지 않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내 인사들에게는 아직 관련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대호가 좋은지, 아닌지의 기점에 대해 결심하고 있는 사람부터 함께 하는 게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송영길, 반尹 플랫폼 정당 제안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주서 북콘서트 열고 “분명한 연합정당 필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마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북 콘서트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 비판과 신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전 대표는 9일 오후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지지자를 비롯한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앞서 오전에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기자들과 북 콘서트 사전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소만준 전주출발행동 대표와의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된 이날 북 콘서트에서 먼저 송 전 대표는 전날 검찰 출석에 대한 소망에 대해 “특수부 수사에 대상이 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불안해 지고 그렇다. 압수수색 후 술 없이 잠 못 잘 때도 있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다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인 만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목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재판을 신청하면 판사앞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 송 전 대표는 “플랫폼 당을 확실하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에 조정훈 시대전환, 용해인 기본소득당 등을 합한 부분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전면적 플랫폼으로 반 윤석열 세력들이 모여서 융해인도

조국도 다 모이면 된다. 민주당에서도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며 “민주당이 꼭 정치적 성과를 자기 독점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연합정당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당시) 김대중 총리께서도 어려울 때마다 지하 단층을 초빙해서 재야 연석회의를 소집, 국민적 항쟁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 왔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연석회의의 소집을 제안해서 각 단체들을 비롯해 군소 정당, 반윤석열 기치에 동요하는 분명한 연합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아닌 것처럼 숨기지 말자”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가 캠퍼리 핑계를 전북에 떠넘기고 캠퍼리 예산을 깎고 있다”며 “재만금에 있는 그린수소 산업단지 등 프로젝트에 여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환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뉴시스